

결핵 상담실

Q 남편이 폐결핵입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했는데, 6개월 정도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께서 남편이 어렸을 때 결핵에 걸린 적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결핵이 유전인가요? 전염이라면 전염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전염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신계획도 있는데 여로모로 걱정이 됩니다.

A 폐결핵은 유전되지는 않으며 전염성 질환으로서, 병이 심하거나 내성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개 치료 시작 후 2~3주 지나면 전염성은 소실되게 됩니다. 전염 가능 기간 동안에는 기침, 재채기, 대화 등을 할 때 전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식사나 이불, 의복, 침구류 등으로 옮기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접 치료받는 것이 아니므로 임신은 무방하지만, 가능하면 남편의 치료가 종결된 후 임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약을 복용하는 날 받은 객담으로 검사한 결과를 며칠 전에 통보받았습니다. 아이나 리팜핀에 내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다제내성결핵인가요? 보건소에서는 객담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은 엑스레이 검사만 해도 될 것 같다고 했고,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만약 다제내성결핵이라면 가족들은 또 다른 검사를 해야 하는지, 모든 도말검사에서는 균이 한 번도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처음부터 다제내성 결핵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결핵으로 치료를 불성실하게 받다가 내성이 오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환자가 처음부터 다제내성 결핵균에 감염되어 발병한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차 약으로 처방을 변경하여 재치료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들은 성인의 경우 처음에 흉부 X-선 소견이 정상이었다면 정기적으로 유증상시 X-선 검사를 기본적으로 받으면 되지만,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추가로 잠복결핵 검사(결핵 피부반응검사, 인터페론 검사 등)를 요할 수 있습니다.

1년 3개월간의 약복용 후 임파선 결핵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핵약 부작용으로 얼굴이 검어지고 몸도 노르스름하고 칙칙해졌는데, 얼굴색이 치료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또 정기검진은 얼마나 한 번씩 받아야 할까요?

대개 결핵치료를 종결하게 되면 세월이 흐름에 따라 피부 색깔도 점차 원래대로 회복되어 갑니다. 그러나 개인차가 있어 어떤 분들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조금 검은 채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파절 결핵의 경우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정기적인 검진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래도 가끔씩 담당의사의 진료와 확인을 받기를 권합니다.†

Q

A